



계란과잉생산에 따른 약세권 지속

◆ 동향

수도권 기준 난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이후 개당 104원으로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난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연초 꾸준한 노계도태가 이루어졌음에도 현재 생산에 가담하는 계군이 많은 탓에 쉽게 생산감축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계란할인행사 등을 통해 어렵게 재고량 소진에 나서고 있으나 생산물량이 많은 탓에 난가 반등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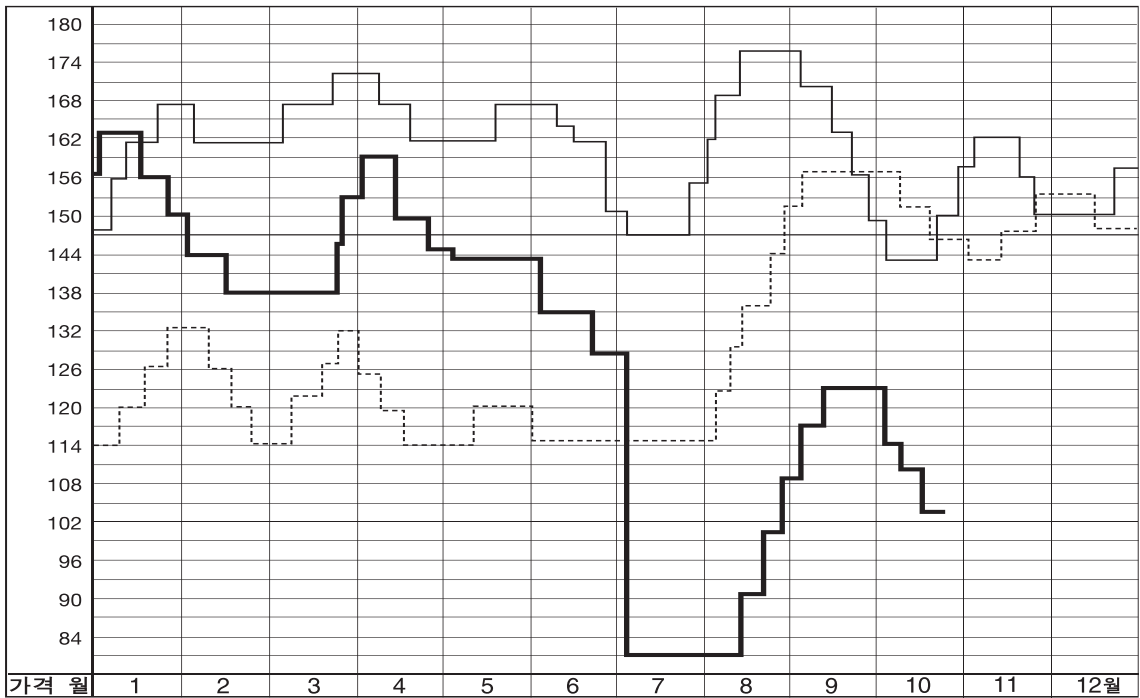
◆ 자료분석

9월 산란중계입식마리수는 52,000수로 전년대비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까지 누계입식마리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6.9% 감소하였다. 산란 병아리 분양마리수는 2,347천수로 전년동월대비 6.8% 감소, 전월대비 17.7% 감소하여 분양마리수는 잠재력 대비 크게 감소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올해 4/4분기 계란생산에 주로 영향을 미칠 올해 2/4분기 병아리 분양마리수는 10,212천수로 전년대비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육추사료 24,931톤으로 전년대비 12.4% 감소하였고, 산란사료는 167,496톤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산란노계 도축마리수는 2,253천수로 전년 동기간 대비 92.5% 증가하였으며, 8월까지의 누계수치는 전년 동기간 대비 76.2% 증가하였다.

◆ 전망

당분간 계란의 특별한 수요가 없는 시기여서 11월들어 난가 추가하락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계란생산에 가담하는 계군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신계군이 많은 탓에 계란생산성도 좋아 꾸준한 노계도태에도 쉽게 계란생산 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사육중인 계군의 대부분이 지난해 말에서 연초 입식된 계군으로 아직 도태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계군이 많아 쉽게 계란 감축이 나타나기 어려워 보인다. 난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대형할인매장에서 계란할인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고물량 소진과 일시적인 유통활성화를 보이는 것 외에는 큰 난가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 2012.7.6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47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10-- 2011- 2012 -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중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09	0	2,895	22.6	163.9	1,050	1,553
	2010	34,000	2,570	25.3	169.4	1,100	1,224
	2011	11,000	2,380	27.1	181.0	1,200	1,595
	2012	20,000	3,313	29.8	175.8	1,338	1,589
2	2009	48,300	2,894	20.1	144.5	1,050	1,374
	2010	33,896	2,338	23.9	156.4	1,150	1,246
	2011	0	1,659	22.5	154.6	1,336	1,629
	2012	0	3,127	29.6	163.3	1,300	1,417
3	2009	43,500	3,294	25.1	168.1	994	1,420
	2010	71,396	3,299	25.7	174.8	1,150	1,235
	2011	65,600	2,317	24.1	173.7	1,450	1,676
	2012	10,600	3,296	31.2	177.4	1,272	1,420
4	2009	109,368	2,808	27.2	164.5	917	1,455
	2010	56,000	3,178	28.1	169.4	1,122	1,176
	2011	61,500	2,196	22.0	167.9	1,438	1,670
	2012	137,520	3,245	29.2	171.0	1,239	1,528
5	2009	0	2,519	26.5	157.5	850	1,597
	2010	52,000	2,606	27.8	165.7	956	1,179
	2011	128,092	2,959	23.9	171.9	1,450	1,625
	2012	50,000	3,686	32.0	172.3	1,200	1,405
6	2009	71,300	2,956	26.8	156.2	892	1,448
	2010	0	2,419	29.2	154.8	900	1,152
	2011	85,300	2,958	25.9	163.0	1,450	1,614
	2012	0	3,281	30.1	163.6	1,175	1,332

※2009년 11, 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

7	2009	60,500	3,077	29.3	146.7	1,100	1,255
	2010	29,700	3,202	25.9	156.9	928	1,200
	2011	0	2,871	25.3	149.1	1,450	1,495
	2012	0	2,700	28.6	158.5	1,150	886
8	2009	60,800	3,154	23.8	156.6	983	1,279
	2010	42,000	2,368	23.3	149.9	950	1,313
	2011	49,080	2,644	28.5	170.0	1,450	1,706
	2012	84,000	2,850	27.3	159.2	1,028	911
9	2009	56,000	2,598	27.1	173.3	1,041	1,386
	2010	45,000	2,600	24.3	162.4	1,000	1,558
	2011	83,200	2,516	28.5	162.9	1,450	1,625
	2012	52,000	2,347			1,050	1,195
10	2009	77,028	3,051	27.0	160.3	1,050	1,248
	2010	80,800	2,822	25.8	165.5	1,050	1,501
	2011	43,500	2,955	28.1	166.2	1,450	1,454
	2012					1,083	
11	2009	10,580	3,076	26.0	162.0	1,050	1,167
	2010	43,000	3,134	26.9	170.7	1,133	1,458
	2011	96,692	3,086	27.8	169.3	1,450	1,580
	2012						
12	2009	11,000	2,813	26.5	180.6	1,083	1,212
	2010	47,600	2,962	28.7	184.3	1,172	1,504
	2011	41,600	3,697	30.9	180.8	1,439	1,515
	2012						
계	2009	517,576	35,260	304.6	1,944.4	990	1,361
	2010	538,692	32,761	316.4	1,980.8	1,052	1,308
	2011	665,564	32,238	314.5	2,010.0	1,418	1,599
	2012						